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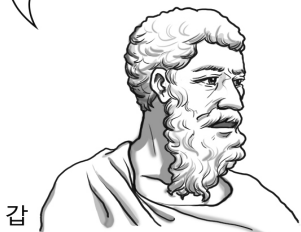
무릇 사람의 본성은 군자와 소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본성을 바로잡아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듯이, 여러분도 스승과 법도를 따르고 학문에 힘쓰며 날마다 자기를 성찰한다면 앞이 밝아지고 행동에 과오가 없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본성을 함양하기 위해 의로운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②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 ③ 정신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 외적 규범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도덕적 인격 완성을 위해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실천해야 한다.
- ⑤ 성현이 제정한 예의를 배우고 익혀 성정(性情)을 교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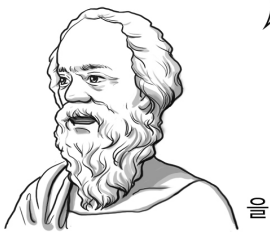
2.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올바름이란 더 강한 자의 이익입니다.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공포하고, 이를 위반하면 오히려 못된 자로 여겨 처벌합니다.

올바름이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영혼의 수련으로 무지를 자각하고 올바르게 무엇인지 알면,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익을 돌봅니다.



갑



을

<보 기>

- ㄱ. 갑: 세속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 ㄴ. 을: 지혜의 덕을 갖춘 인간도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ㄷ. 을: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보편적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보리의 성(性)은 거름을 좋아하고 연꽃의 성은 물을 좋아한다. 사람의 성은 선(善)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을 실천하고 의(義)를 쌓으면 마음이 바르고 올곧아진다.
- 하늘은 사람에게 권형[權]을 주어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면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 저울질은 자기에게 있으니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르다.

- ① 도덕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② 인간의 성은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이치로서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 ③ 사단은 인의예지의 덕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선한 마음이다.
- ④ 인간과 동물은 모두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 ⑤ 영지의 기호를 따르지 않은 행위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을: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로서 모든 인위적 덕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출한다.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도덕적 소감을 통해 덕과 악덕의 차이가 확정될 수 있다.

- ① 갑: 공동체의 행복은 그 구성원들 행복의 총합보다 크다.
- ② 갑: 쾌락의 가치는 쾌락의 양적 차이로만 평가될 수 없다.
- ③ 을: 덕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시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 ④ 을: 이성은 덕과 악덕을 구별함으로써 도덕적 행위에 기여한다.
- ⑤ 갑과 을: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

5.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는 단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이다. 합당하게 제정된 법은 간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법은 시민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을: 자유는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은 넓어진다. 법이 자의적 전제와 혼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법은 항상 족쇄이다.

- ① 갑: 합당한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
- ② 갑: 참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불간섭만으로도 충분하다.
- ③ 을: 침해될 수 없는 사적 영역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
- ④ 을: 국가는 개인에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⑤ 갑과 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6.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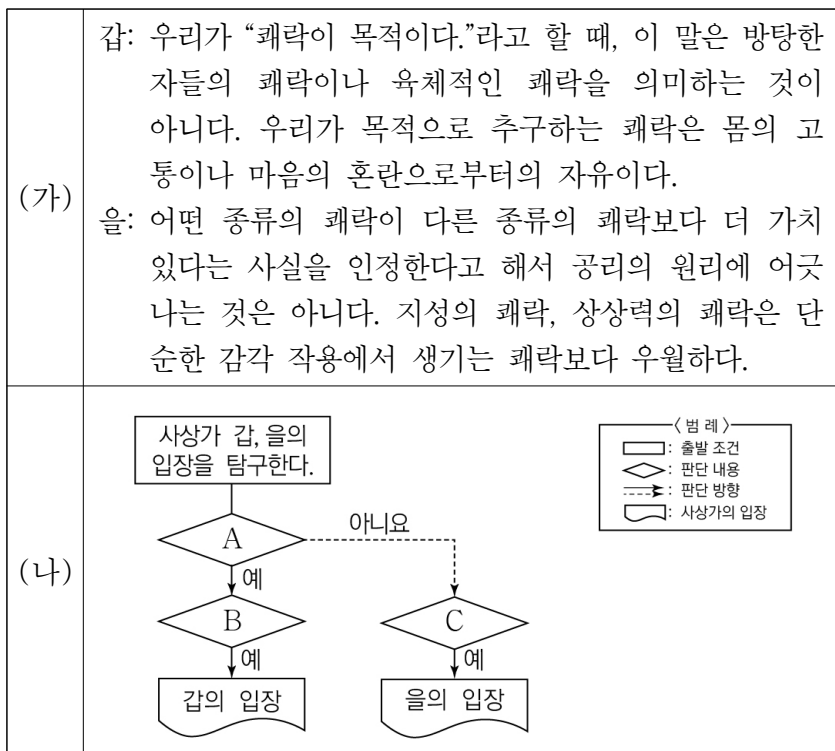
갑: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무명(無明)을 인연하여 행(行)이 있고, 행을 인연하여 식(識)이 있고 나아가서는 생(生)을 인연하여 늙음과 죽음, 그리고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을: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이것과 저것의 대립이 없어지는 것이 도의 중심축[道樞]이다. 도의 중심축에서 보면 만물의 무궁한 변화에 응할 수 있다. 진인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노닐게[逍遙] 한다.

<보 기>

- ㄱ. 갑: 팔정도를 실천하여 고정불변의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ㄴ. 갑: 연기(緣起)를 깨달으면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ㄷ. 을: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의 미추(美醜)는 상대적이다.
 ㄹ. 갑과 을: 수양을 통해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근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ㄴ. B: 쾌락을 누리려면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가?
 ㄷ. B: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불멸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야 하는가?
 ㄹ. C: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면 자기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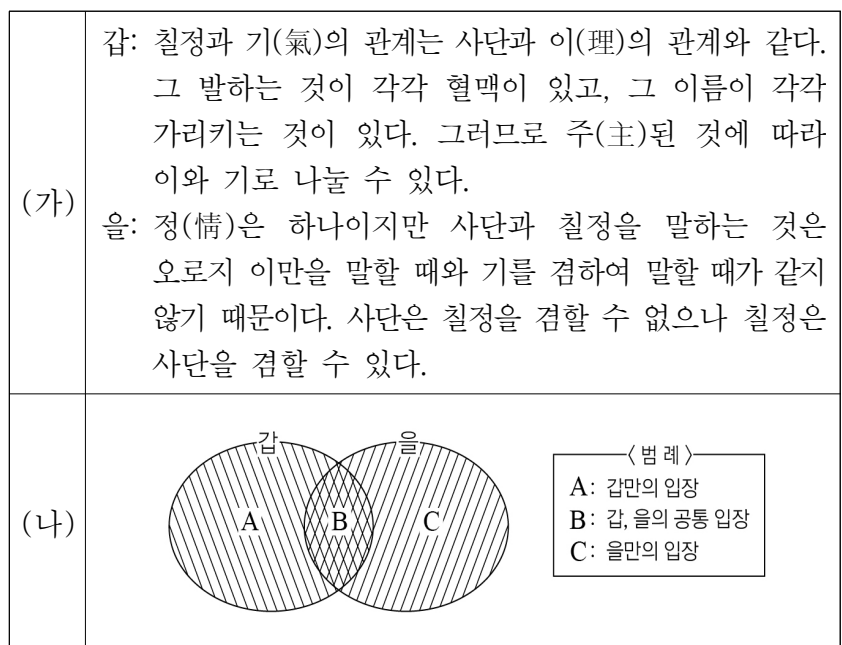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현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된다.
 을: 본질보다 존재가 앞선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이후에 정의된다. 인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중에 비로소 스스로 무엇이 될 수 있다.

- ① 갑: 고정적인 성과보다 성장과 진보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② 갑: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
 ③ 을: 인간은 신을 믿고 따르려는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④ 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선험적 원리를 수립해야 한다.

9. (가)의 한국 유교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누구나 기질의 교정을 통해 사단을 획득할 수 있다.
 ② A: 이는 기를 주재할 뿐이며 오직 기만 운동성을 지닌다.
 ③ B: 희로애락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올라탄 감정이다.
 ④ B: 사단과 칠정은 모두 감정이므로 같은 연원에서 유래한다.
 ⑤ C: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에서 분리될 수 없다.

10.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을: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고, 숙고와 심의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 시민은 항상 합리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 갑: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가들의 자유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③ 을: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은 공적인 토론 여부와 무관하다.
 ④ 을: 정치적 이견을 가진 시민들은 상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다.
 ⑤ 갑과 을: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으로 시민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11.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는 많은 것을 ‘각각의 것은 좋다.’라고 말하거나 ‘각각의 것에 좋은 것 자체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각각에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 상정해서 한 아이디어에 따라 각각이 실재하는 것이라 일컫는다.
을: ‘인간 자체’나 ‘인간’이 모두 인간인 한에서 차이가 없다면 ‘좋은 자체’나 ‘좋은’ 역시 좋음인 한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좋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므로 어떤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 <보 기> —
ㄱ. 갑: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
ㄴ. 갑: 최고의 통치자인 철학자는 좋음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
ㄷ. 을: 최고의 좋음은 모든 좋음을 포함하는 완전한 것이다.
ㄹ. 갑과 을: 좋음에 대한 보편적인 판단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람들은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도 자연법을 준수할 수 있다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을: 사람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평한 재판관이 없는 경우 자연 상태의 폐단을 겪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연법의 집행권을 입법부에 맡기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다.

- ① 갑: 공통의 권력이 수립된 이후에 정의의 관념이 생겨난다.
② 갑: 자연 상태에서 이기적인 인간은 이성을 발휘할 수 없다.
③ 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④ 을: 정부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는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통치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인간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13. 중세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신을 멸시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상의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나라를 만들었다. 지상의 나라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천상의 나라는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을: 신의 빛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듯,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 안에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 ① 갑: 선의 결핍 상태인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② 갑: 인간은 신의 은총으로 지상의 나라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다.
③ 을: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④ 을: 영원법은 사물이 아닌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
⑤ 갑과 을: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으므로 신의 계시를 따라야 한다.

14. (가)의 중국 유교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마음은 영명(靈明)하여 모든 앎을 지니고 있으나,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하지 않으면 그 앎은 반드시 막힘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앎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을: 마음이 사사로운 욕망에 가려지지 않은 것이 곧 천리(天理)이니, 마음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탬 것이 없다. 내 마음의 양지(良知)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은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나)	<div><p>— <범례> —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p><p>— <예시> —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div>

— <보 기> —
ㄱ. A: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ㄴ. A: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 사이에 선후가 있음을 간과한다.
ㄷ. B: 사물의 이치가 마음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ㄹ. B: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양지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중국 불교 사상이자 갑, 한국 불교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성(自性)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자성을 깨달으면 단박에 깨닫고[頓悟] 단박에 닦으니, 점차는 없다. 자성을 깨달으면 곧장 부처를 알게 된다.
을: 자성이 본래 부처와 다를 것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아도 습기(習氣)는 단박에 제거할 수 없다. 깨달음에 의지해 닦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한 뒤에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

— <보 기> —
ㄱ. 갑: 깨달음에 이르려면 경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ㄴ. 을: 습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본성의 자각이 불가능하다.
ㄷ. 을: 부처의 마음[禪]과 부처의 말씀[敎]은 본래 둘이 아니다.
ㄹ. 갑과 을: 삼학(三學)의 수행을 통해 불성을 형성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에 따라서 행위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법칙에서 행위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는 선택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 <보 기> —

ㄱ.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는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ㄴ. 선의지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ㄷ. 실천 이성은 언제나 행복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한다.
 ㄹ.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 명령이지만 인간의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서양 세력을 공격하자라는 것은 우리 쪽 사람의 주장이고, 화친(和親)하자라는 것은 저쪽 사람의 주장이다. 전자를 따르면 옛 문물과 제도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禽獸)의 지경이 될 것이다.

을: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다.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여[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 ① 갑: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② 갑: 서양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
 ③ 을: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서양의 학문과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
 ④ 을: 누구나 마음 안에 한울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⑤ 갑과 을: 성리학적 질서와 제도를 타파하여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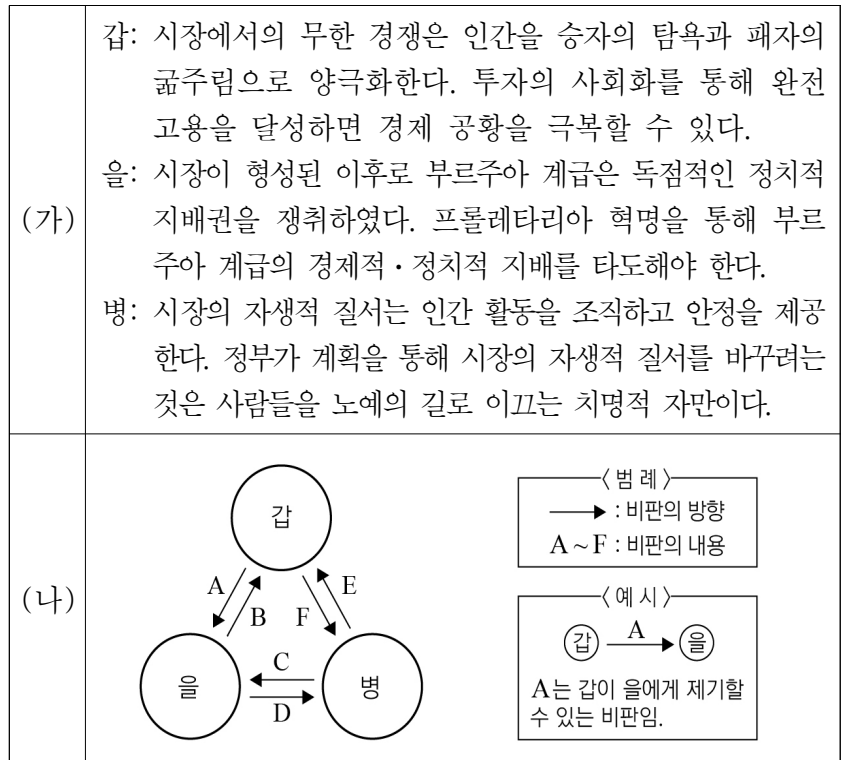
1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리는 신의 섭리인 이성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 이는 억제할 수 없는 운명이 찾아올 때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인간 세상의 칭찬과 권력, 그리고 쾌락의 향유도 이성에 속한 선(善)과 경쟁할 자격이 없다.

을: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이로써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 ① 갑: 개인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
 ② 갑: 인간은 자기 운명을 변화시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③ 을: 신은 자연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 원인이다.
 ④ 을: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
 ⑤ 갑과 을: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와 C: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가 불평등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② B: 노동 분업을 통해 생산력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함을 간과한다.
 ③ D: 구성원의 필요가 아닌 능력에 따른 분배를 실현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E: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이 시장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정부는 시장에서의 사익 추구 활동을 보장해야 함을 간과한다.

2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은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깝다. 군주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다.

을: 성인(聖人)은 억지로 하지 않으므로[無爲]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나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아도 알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으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아우른다.

- ① 갑: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② 갑: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여 민심(民心)을 잃으면 추방될 수 있다.
 ③ 을: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아야 남들과 다투지 않게 된다.
 ④ 을: 성인의 가르침으로 백성이 인의를 갖추면 인류가 구현된다.
 ⑤ 갑과 을: 법률과 형벌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